

## 제 22 장

### 우리의 동정 많으신 대제사장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히 2:17~18).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히 4:15~16).

### 우리의 필요

우리는 죄와 죽음과 심판과 불행과 좌절과 소외와 슬픔과 실망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땅을 죽어버린 자들을 끊임없이 묻어야 할 하나의 거대한 공동 묘지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적절한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궁핍은 하늘의 높이 만큼이나 올라 갔고, 우리 영혼의 깊이에까지 도달하였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목자가 필요하고, 우리가 하늘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는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순례자의 길에서 우리와 함께 길을 동행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이며, 여행자이기 때문입

니다. 우리는 격려해 줄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며, 우리가 슬픔에 빠졌을 때 우리를 도와 줄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어떤 여인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 나에게 말을 걸어줄 마음에 상처입은 사람이 혹시 없습니까?” 우리는 병실에서 우리를 만나줄 어떤 사람이 필요하며, 새로 무덤을 파기에 앞서서 우리 곁에 함께 있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순교자의 영웅적인 죽음에 의해서 감동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약하고, 힘이 없고, 가난하고, 이름 없고, 연약하고, 무기력한 자들의 가련한 울부짖음에 의해서도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 주님의 길을 우리에게 해석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분을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온 인류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지울 수 없는 갈망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한 이러한 열렬한 갈망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모든 땅에서 성전을 세우게 되고, 모든 땅에 제단을 세우게 되고, 모든 민족과 부족들 가운데서 제사장을 따로 분리하여 세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련된 현대 문명 속에서도, 고대의 원시적인 숲속에서도, 거대한 사막의 유목민들에게도, 고대 강의 유역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그리움은 계속해서 나타났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연구하였고, 과학의 비밀을 조사하였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그 위대한 창조주의 손을 찾아낼 수 있다.” 혹자는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본성으로부터 하나님의 본성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올라가는 것은 우리 연약한 인간에게는 너무나 가파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어떤 대표자 또는 어떤 대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어떤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해 주시는 어떤 분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죄의 경험은 가장 추하고 어두운 경험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을 파헤치는 것입니다. 그 죄는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그 죄는 우리를 저주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힐난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죄의 무섭고 두려운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 저주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지옥의 불로 떨어지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게 하고 깨끗하게 해 줄 것입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하늘의 문을 열어 줄 것입니까? 우리는 죄의 심판과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과 위대하신 구세주를 필요로 합니다.

### 우리의 필요에 대한 응답이신 그리스도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필요는 우리의 위대하신 그리스도,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 안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칩니다. 그리스도는 친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알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면 그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것은 곧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았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발 아래에 앉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한 분의 인격 안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간성의 신비를 온전하게 파악해 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 성육신의 그 무한한 신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못 박힌 손으로 우리에게 건내주시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따라 주실 때, 우리는 단지 그것을 받을 수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또한 예수님 안에서만 죄의 용서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할 수 있고, 우리 대신 죽음을 대신할 수 있었던 사람이 이땅에 살았던 적이 결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위대한 영웅이건 간에, 또한 아무리 고귀하고 유명하건 간에, 그들도 역시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용서를 받아야 하고, 대속, 속죄 그리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알렉산더 대왕, 시저, 찰스 대제, 프리드리히 대제, 나폴레옹 황제와 같은 위대한 인물들을 거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가운데서 그렇게 유명하고 크나큰 영웅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의 죄로 인한 심판으로 부터 우리를 구원하리라고는 꿈에라도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유일하게 단 한 명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라고 신약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그분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었고,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았고, 그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걷게 되었습니다.

다.

그렇게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지고 있는 부채는 우리 주님께 의해서 완전히 지불되었습니다.

어떤 위대하고 능력있는 분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은 우리로부터 굉장히 머나먼 거리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한 분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속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형제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세계와 지구와 하늘과 온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은 모든 역사를 관장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입으신 그 왕의 의복 아래에는 우리를 향한 동정으로 고동치는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우리의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입으신 그 옷의 흉배 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분의 손 안에는 그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구속하신 권속에 대한 지울 수 없는 표시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한 분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역사의 어떤 한 순간에 인간의 형태를 취하셨지만, 그의 죽음과 부활시에는 그 인간의 모습은 버리고 다시 하늘 나라에서는 순수한 영적인 신성만을 지니신 분으로 되돌아 가셨다는 잘못된 이론에 우리는 자주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모습이 여전히 인간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는 이 사실보다 더 힘주어 강조하는 것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선포하고 제시하고 확신하는데 있어서 그 어느 것보다도 더 애를 써서 강조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눅 24 : 39). 주님께서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고 묻자 제자들은 주님에게 구운 생선

과 떡 조각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들 앞에서 그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믿지 못했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손과 발과 그리고 옆구리에 있는 그 상처를 보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우주의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이 사실보다 더 위대한 선언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서셨던 그분과, 요셉의 새 무덤에 묻히신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으신 이 땅의 주님이십니다.

### 그리스도의 중재 사역은 지금도 그리고 영원하도록 효험을 가진다

하늘 나라에 계신 우리의 위대하시고 동정이 많으신 대제사장이신 우리의 주님께서 이루신 그 엄청난 효험을 가진 그 사역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지상에 계셨을 때에는 제사장으로 지내시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그는 레위인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유다 족속에서 태어 나셨습니다. 그는 아론의 가문에 속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는 다윗의 가문에 속하신 분이었습니다. 그가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기 위하여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을 때에는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승계는 아론의 반차를 좇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으신 것이며, 이것은 모든 세대를 통하여 영원하게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은 하늘 나라의 지성소에서 동정 많으신 우리의 대표자와 중보자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한 간구자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친절이나 동정 또는 자비로운 마음을 보여 주기 위하여 개에게 뼈다귀를 던져주는 것과 비슷한 제스처어를 취할 때가 있

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은 그러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허약함에 동정을 가지시는 분이십니다. 불쌍한 우리의 간구와 울음 소리는 그분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로 인하여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봉사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환자가 치유되는 과정에서 그 절반은 의사의 동정과 친절이라고 항상 생각합니다. 내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에 매우 아픈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나를 간호하시던 부드럽고 따스한 어머니의 그 손을 지금까지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허약함에 마음이 움직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무리 가운데 있는 절름거리는 허약한 양을 마구 몰아대지는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 양을 자신의 품에 안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부드러우시고 소중하신 대제사장이시며, 우리와 같으신 분이 되셔서 계속되는 우리의 궁핍에 동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늘 나라에서 살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는 때때로 로마서 5:10의 심오하고 헤아릴 수 없는 그 의미를 이해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롬 5:10).

우리는 그의 살으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영광 중에서 하늘 나라에서 그분이 계속해서 살아 계신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분은 구원받은 우리를 지금도 계속해서 보호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체험은 그 계속성에 있어서 분리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중생하여 거듭났을 때, 주님을 우리의 생애에서 바로 그 순간에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죽어서 감각을 상실하고 생명이 떠나갔을 때, 바로 그 때에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셔서 구원받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계속하여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방향을 가리켜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 계신 주님이십니다 !

나는 때때로 예수님께서 스테인드글라스의 그림 안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신다고 자주 생각합니다. 그분은 스테인드글라스 안에서 그림으로서만 남아 계십니다. 우리는 일요일에 교회에 와서 그림을 볼 때에 예수님을 잠깐 보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그곳에 내버려 두고 교회를 나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주일 기간 동안에 우리와 함께 걸어도 못합니다. 우리는 그 스테인드글라스의 창문에서만 예수님을 바라 볼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주님의 관계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그 그림이나 상징으로 된 십자가에 고정되어 있어서 그곳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구원받은 우리를 영원토록 보호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25의 그 놀랍고도 아름다운 말씀을 살펴 보십시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히 : 7 : 25).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이곳은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사단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존전에 서게 되고, 구속을 받아서 죄를 씻은 바 되고 정결케 되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확신은 영원히 살아 계시는 우리 주님의 중보 기도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사단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단과 힘을 겨룰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시체를 놓고 미가엘 천사가 사단과 논쟁을 할 때에도 그 천사는 감히 그에게 비난을 퍼붓지 못하였습니다. 미가엘 천사장도 그렇게 대적할 수 못하였다면, 흠으로부터 만들어진 불쌍하고 가련한 우리 인간들이야 하물며 어떻게 그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단의 간계와 저주와 죄를 정복할 수 있다는 생각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의 확신은 단지 하늘 나라에 계신 우리 주님의 중재하시는 보살핌과 사랑의 사역에 의한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천사들을 보내시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불명거로 우리를 둘러싸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보전하셔서 어느날엔가는 우리를 그 영광의 하나님의 존전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역시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서 잠깐 조금 다른 주제로 우리의 관심을 옮겨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핵심은 어떤 조직이나 체계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계획이나 프로그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는 그 자체가 하나의 용서에 대한 교리가 결코 아닙니다. 용서하시는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스도교는 구원에 관한 하나의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스도교는 대속의 교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교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리스도교는 윤리와 도덕의 어떤 현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교는 우리를 의롭고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리스

도교는 어떤 설득이나 희망이나 장래의 삶과 불멸성에 관한 교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교는 우리가 침례(세례) 의식에서 볼 수 있는 바로 그 영상입니다. 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장사지낸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 안에서 불멸의 생명, 즉 그분 안에서 영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분은 한 분의 인간이시며, 인간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지금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분은 사랑과 동정이 넘치시는 분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히 2:17~18).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만져주셨고, 시험에 빠져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강건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육체를 지니시고 이 땅에서 그의 날을 보내시던 그때와 하늘에 계시는 지금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분은 아주 미세한 울음 소리도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군중들에 둘러 싸여 있을 때 “누가 나를 만졌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것은 당치도 않는 질문입니다. 주님은 사방에서 둘러 싸여 있는데, ‘누가 나를 만졌느냐’고 물으시다니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군가가 나를 만졌다”고 말씀하십니다. 혈루병에 걸린 어떤 한 가련한 여인이 마음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옷깃이라도 만질 수 있다면, 나는 구원을 받게 되리라.”

주님께서 이 지상에서 육체를 입고 계실 때, 소경 바디매오는

주님에게 소리를 쳤으나 거기에 서 있던 다른 모든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용히 하라. 나사렛에서 오신 이 위대하신 선지자는 너무나도 할 일이 많아서 너에게 관심을 쏟을 여가가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나에게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소경의 눈을 보이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 가실 때에 그의 옆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한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서 주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나라로 들어 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주님은 “바로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계실 때에도 길이셨으며, 지금도 여전히 길이 되신다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연약한 감정에 깊은 동정을 가지십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서는 하늘 나라에서 고개를 숙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세히 살펴 보십니다.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매우 작은 그의 성도들이 애원하고 부르짖을 때에 그의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은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 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백성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허리를 굽혀서 그의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가 동아프리카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에 어떤 선교사 한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여기의 부족은 ‘Come By Me’라는 단어들을 잘 발음하지 못합니다. 이 단어와 가장 가까운 그들의 단어는 ‘Kum Ba Yah’(쿰바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Lord, Come By Me”(주님, 나에게 가까이 오십시오)를 “Kum Ba Yah”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 콤바야라고 부르짖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 콤바야라고 부르짖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 콤바야라고 부르짖습니다.  
오 주님, 콤바야.